

SESSION 04

Betrayed and Arrested 배신당하고 체포되다

Session summary

In this session, we will see that Jesus, the Son of God and the Son of Man, chose to obey His Father and drink the full cup of suffering and wrath in order to purchase eternal life for believers. Even though He would be betrayed and endure false accusations, mockery, physical abuse, and death, Jesus accepted the foretold plan of His Father and fulfilled His identity as the promised Messiah sent to be the Savior of the world.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고난과 진노의 잔을 온전히 마시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위해 영생을 얻으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거짓 비난과 조롱, 육체적 학대와 죽음을 견뎌내셨지만,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약속받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성취하셨습니다.

Scripture

Matthew 26:36-49,56,59-66 마태복음 26:36-49,56,59-66

The Point

Jesus was sent by the Father to face judgment for our sins.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도록 보내셨습니다.

INTRO/STARTER 5-10 MINUTES

Option 1

Tabloid magazines and websites make a lot of money off of celebrity arrests. Hardly a month goes by when another movie or television star is not featured on the cover of a newspaper, website, or magazine with headlines about a shocking arrest. Some are not so shocking, while others are rather surprising.

Perhaps no arrest has ever been so shocking as Jesus' arrest. For years, His disciples assumed His approach to Jerusalem would be an ascent to the throne. Even Jesus' multiple predictions of His own arrest and suffering did not curb the disciples' hopes and expectations, though these predictions may have tempered the excitement a bit. Whether to purify the temple or overthrow the Romans, Jesus was there to lead the people to liberty and life, not to be led to captivity and death—or so they thought. Besides, He was the only innocent person to ever live. After all the good He did, who would want to falsely accuse Him of a crime and see Him convicted?

Have you ever been falsely accused or punished for something you didn't do? How did you respond?

타블로이드 잡지와 웹사이트들은 유명인들의 체포 소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영화나 TV 스타가 신문, 웹사이트, 잡지 표지에 등장해 충격적인 체포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체포는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지만, 어떤 체포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체포만큼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신의 체포와 고난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기대는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든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시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포로로 잡혀 죽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선행을 생각하면, 누가 감히 그분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거짓 고발을 당하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Option 2

Just like the world outside of your school walls, schools have rules that they ask their students to follow. Those rules are in place to keep the students, teachers, and the rest of the staff, safe. Sometimes, teachers come up with rules for their own classrooms to create a better learning environment for their own students. Maybe you're homeschooled and your teacher has strict rules that apply during the hours you focus on school work. And just like laws in the real world,

the rules of our schools have consequences for when we don't follow them.

What are some school rules or class rules you're asked to follow?

What are some common consequences schools give for broken rules?

Similarly, God gave the law through Moses to the Israelites. The law required sacrifice for sins. But humans can't obey God's law perfectly. So, because of His love and mercy, God would send His own Son to be the once for all sacrifice for our sins. He would take on every consequence for every law every broken—because He was the only One who could obey those laws perfectly. He was a final, perfect sacrifice. Jesus experienced pain, temporary separation from God, death, and sin—all so that we wouldn't have to experience those things eternally.

학교 밖 세상처럼 학교에도 학생들이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학생, 교사, 그리고 다른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때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 규칙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도 선생님이 학습 시간 동안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법처럼 학교 규칙에도 어기면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교 규칙이나 수업 규칙을 지켜야 하나요?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르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결과를 대신 짚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 죽음, 그리고 죄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HIS STORY 15-20 MINUTES

THE POINT

Jesus was sent by the Father to face judgment for our sins.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도록 보내셨습니다.

Characters

Jesus: the eternal Son of God;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The Disciples: the twelve men Jesus chose to follow Him, take part in His ministry, and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Chief priests and elders: the religious leaders of Jerusalem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제2위

제자들: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고, 사역에 참여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선택하신 열두 제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Plot

Following the last supper, the disciples were still in the dark about what would soon take place. They knew Judas was certainly involved in some suspicious activity, but they did not know the extent. They also had not fully realized that what they celebrated during the Passover pointed to Jesus—the Lamb of God who would atone for the sins of those who believe.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어떤 수상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정도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월절에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 곧 믿는 자들의 죄를 속죄하실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JESUS AGREED TO HIS MISSION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락하셨습니다.

Gethsemane was a familiar gathering place for the disciples. *Gethsemane*, a name meaning *oil press*—as it probably had a press on site for the harvesting of oil from the olives littering the landscape—was a little olive tree orchard on the western slope of the Mount of Olives.

The account of the nigh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is filled with struggles. The disciples struggled to stay awake. Jesus struggled with the disciples over their inability to remain alert. Later, Peter struggled with the guards, and all the

disciples would struggle to understand. But in the garden, the greatest struggle seemed to be within Jesus Himself. As Jacob wrestled with the Lord through the night, Jesus wrestled with the weight of His identity and mission. Taking leave of His friends, Jesus headed off alone into the night for solitude, as was His custom (Mark 1:35; 6:46; Luke 5:16). But this was no customary prayer time. Jesus, the Son of God, was overwhelmed with sorrow as He faced what was before Him.

36 Then Jesus went with them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37 And taking with him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38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remain here, and watch with me." 39 And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on his fac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it be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40 And he came to the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And he said to Peter, "So,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41 Watch and pray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42 Again, for the second time, he went away and prayed, "My Father, if this cannot pass unless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43 And again he came and found them sleeping, for their eyes were heavy. 44 So, leaving them again, he went away and prayed for the third time, saying the same words again. 45 Then he came to the disciples and said to them, "Sleep and take your rest later on. See, the hour is at hand, and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6 Rise, let us be going; see, my betrayer is at hand." (Matt. 26:36-46)

Three times Jesus prayed, each time resolving Himself to the mission that awaited Him. After each prayer,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only to find them asleep. The One who would soon feel forsaken by the Father first tasted the bitterness of being forsaken by His friends.

Having prayed a third time, Jesus rose in the night to the sound of approaching swords, spears, and armor piercing the silence. Flickering lights danced in the darkness that enveloped Him. The time had come.

겟세마네는 제자들이 모이던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기름을 짜는 압착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서쪽 비탈에 있는 작은 올리브 과수원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 이야기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고, 예수님은 깨어 있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투셨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경비병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동산에서 가장 큰 고뇌는 예수님 내면에서 일어난 듯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의 무게와 씨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고 평소처럼(마가복음 1:35; 6:46; 누가복음 5:16) 홀로 밤거리로 나가 한적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눈앞에 닥친 일을 보시고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36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로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픔과 근심에 잠기셨습니다. **3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죽을 만큼 슬프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4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41**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이 일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3** 다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습니다. **44** 그래서 다시 그들을 두고 가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자고, 나중에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46**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배신할 자가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6:36-46)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명을 감내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을 운명이 곧 다가올 분께서 먼저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쓰라린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밤중에 일어나셨고, 칼과 창, 갑옷이 적막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그분을 감쌌다. 때가 온 것이다.

JESUS' MISSION WAS FORETOLD IN SCRIPTURE 예수님의 사명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We have previously seen Judas' motivations on display in the events surrounding the last supper. At this point in the narrative, He was fully immersed in his wicked intent. Whereas he had formerly left the upper room alone, he returned accompanied by a mob armed with weapons to suppress any resistance.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took no chances that this would be the night—the conclusion of years of opposition.

47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came, one of the twelve, and with him a great crowd with swords and club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48 Now the betrayer had given them a sign, saying, "The one I will kiss is the man; seize him." 49 And he came up to Jesus at once and said, "Greetings, Rabbi!" And he kissed him. ... 56 But all this has taken place that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might be fulfilled." Then all the disciples left him and fled. (Matt. 26:47-49,56)

No one could take Jesus' life from Him. He had made that clear before (John 10:18). If He wanted to retreat, He could pass through the midst of a crowd (Luke 4:30). If He wanted to fight, He could call down 12 legions of angels (Matt. 26:53). Anyone who can calm a storm, walk on water, and cast out demons can control a little crowd. But rather than demonstrate control through lightning or fire, Jesus exercised the self-control of restraint.

In this moment of crisis, there would be no retreat, no revolt, no rescue. Jesus was resolute in accepting what Scripture had foretold. Everything that occurred on that night was foretold, but this was no comfort for the disciples in the dark. Jesus had steadied Himself in His Father's provision and plan, but the disciples were shaken and afraid. The Old Testament message illuminated the events of this night, but the disciples failed to see it. The narrative would not end without even more fulfillment to come, but the sheep were scattered and the Shepherd was led willingly across the dark valley into the city of Jerusalem.

우리는 이미 최후의 만찬을 둘러싼 사건들에서 유다의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악한 의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다락방을 나섰지만, 이번에는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무기를 든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날이 수년간의 반대 끝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나온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48** 배반자는 그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라”고 표징을 주었습니다. **49** 그러자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맞추었습니다. ...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마태복음 26:47-49, 56)

아무도 예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0:18). 만약 물러가고 싶으셨다면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수 있었고(누가복음 4:30), 싸우고 싶으셨다면 12군단의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다(마태복음 26:53).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물 위를 걷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면 작은 무리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번개나 불로 통제력을 보여주시는 대신, 스스로를 제어하시는 절제력을 발휘하셨다.

이 위기의 순간에 후퇴도, 반항도, 구원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성경이 예언한 것을 굳게 받아들여셨다.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은 예언된 것이었지만, 어둠 속에 갇힌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에 굳건히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흔들리고 두려워했다. 구약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을 밝혀주는 빛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양들은 흩어졌고 목자는 기꺼이 어두운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되었습니다.

Going Further with The Story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The Synoptic Gospels—Matthew, Mark, and Luke—leave the identity of the swordsman shrouded in secrecy, perhaps because the culprit was still alive and didn't need treason and attempted murder added to the charge of preaching the gospel. By the time John wrote his Gospel, Peter had probably already been martyred, so he felt free to share the name of the guilty party (John 18:10).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the One who would soon die for His enemies (Rom. 5:8) would show compassion on this injured adversary, demonstrated when He touched the man and healed the severed ear (Luke 22:51).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칼을 든 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범인이 아직 살아 있었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죄목에 반역과 살인미수까지 더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 무렵에는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는 범인의 이름을 밝히는 데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요한복음 18:10). 곧 원수들을 위해 죽으실 분(로마서 5:8)께서 이 상처 입은 대적에게 연민을 보이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그 사람을 만지시어 잘린 귀를 고쳐주셨습니다(누가복음 22:51).

JESUS AFFIRMED THE TRUTH ABOUT HIS IDENTITY AS THE MESSIAH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For most of His life, Jesus' true identity was hidden under a veil. Occasionally someone would perceive His divine identity, but such revelation was mostly met with a call to secrecy and silence. But this was the moment of truth, the culmination of three decades of life and three years of ministry.

59 Now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false testimony against Jesus that they might put him to death, 60 but they found none, though many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At last two came forward 61 and said, "This man said,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to rebuild it in three days.'" 62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and said, "Have you no answer to make? What is it t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63 But Jesus remained silent. And the high priest said to him, "I adjure you by the living God,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64 Jesus said to him, "You have said so. But I tell you, from now on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65 Then the high priest tore his robes and said, "He has uttered blasphemy. What further witnesses do we need? You have now heard his blasphemy. 66 What is your judgment?" They answered, "He deserves death." (Matt. 26:59-66)

The high priest's voice dripped with disdain as he asked Jesus to tell them the truth about His identity as the Messiah. Jesus' silence must have infuriated the priests. After all, part of the reason they felt threatened by Jesus was that He endangered their sense of authority and control. They assumed they would have the upper hand on their home court, but Jesus remained silent. Person after person came forward and took the stand to charge Jesus with wrongdoing. However, as is the case when most people lie, the lies contradicted each other.

When Jesus finally spoke, it was in response to a call for an oath to the living God, and He went all in. Though His response appears cryptic to us (v. 64), it most likely represents an idiom that would have been a strong confirmation of the charge.

By equating Himself with the Son of Man from Daniel 7:13-14 and referring to His descent from heaven, Jesus doubled down on the charge of blasphemy in the eyes of the Sanhedrin. At this point there was no mistake to be made. He was either blasphemous or blessed. He was the Christ or guilty of the charge of idolatry. To the leaders, the conclusion was obvious.

With these words, Jesus sealed His fate and set the stage upon which He would lay down His own life. What had begun in the garden in darkness would soon be finished in the light of day on Golgotha.

What does this passage tell you about Jesus' commitment to follow through with His Father's plan?

예수님께서서는 생애 대부분 동안 자신의 참된 정체를 베일에 감추고 계셨습니다. 간혹 누군가가 그분의 신성한 정체를 알아차리기도 했지만, 그러한 계시는 대부분 비밀 유지와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삼십 년의 생애와 삼 년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찾고 있었습니다. **60** 그러나 거짓 증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이 나왔지만 말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61**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62**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나?” **63**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 보아라.” **6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5** 그러자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신성모독을 들었습니다. **66** 당신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26:59-66)

대제사장은 예수께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침묵은 제사장들을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위협으로 여긴 이유 중 하나는 예수가 그들의 권위와 통제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처럼, 그 거짓말들은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분은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우리에게는 모호하게 보이지만(64절),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혐의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관용구였을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14절에 나오는 인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눈앞에서 신성모독 혐의를 더욱 확고히 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해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신성모독자이거나 축복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거나 우상숭배죄를 범한 분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결론이 명백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무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둠 속 갓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 일이 곧 밝은 골고다에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헌신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99 Essential Doctrines: Christ as Propitiation

Because of God's righteousness and holiness, humanity's sins must be atoned for in order for people to be reconciled to God. As the propitiation for sins, Christ's death is the appeasement or satisfaction of God's wrath against sin. Christ's propitiation for our sins demonstrates both God's great love toward sinners (1 John 4:10), as well as the necessary payment that results from the penalty of sins (Rom. 3:26).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반드시 속죄되어야 합니다.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하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요한일서 4:10)과 죄의 형벌에 따른 필연적인 대가(로마서 3:26)를 모두 보여줍니다.

CHRIST CONNECTION

In the garden of Eden, Adam failed to resist the serpent and chose to follow his way over God'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the second Adam, submitted fully to His Father's purpose and plan. He willingly submitted to death upon the cross. Jesus demonstrated His identity as the Son of God through His words and actions as He was betrayed, arrested, and put on trial.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갓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말씀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YOUR STORY 10-15 MINUTES

Group Questions

God's Story has always been designed to connect with your story. It is because of His Story that our stories make sense, have meaning, and carry on into eternity. Use the questions below to help think through how His Story connects with your own.

Why do you think the disciples were unable to make the connection between the events of this night and Jesus' prophecies of His impending betrayal and death? Answers will vary.

Why is it significant that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many of the events surrounding the birth,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are important because they give us signs and evidences that Jesus really is the Messiah.

What are some occasions in our own lives in which we can follow in Jesus' example and show restraint even when we are persecuted or treated unfairly for our faith? Answers will vary.

What are some accusations the world makes against the church? Which of these should we reject or embrace? Why? Some accusations include that the church is judgmental, hypocritical, unable to adapt to the changing views of culture, morally behind the times, and so forth.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있기에 우리의 이야기는 의미를 갖고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들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밤에 일어난 사건들과 예수님의 배신과 죽음에 대한 예언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을 둘러싼 많은 사건들을 예언한 것은 왜 중요합니까?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징표와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신앙 때문에 박해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절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제기하는 비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비난 중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 비난에는 교회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위선적이며, 변화하는 문화적 관점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점 등이 포함됩니다.

YOUR MISSION 10-15 MINUTES

Head

The “cup” was a familiar symbol of judgment and wrath in the Old Testament (Ps. 11:6; Isa. 51:17; Ezek. 23:33). Death itself would have been enough to upset even the bravest of men. The threat of torture and crucifixion was an even more imposing imminent reality. But Jesus faced something even worse. Before Him was a cup full of wrath and judgment from the holy God. By drinking it fully, Jesus would know abandonment, sin, desolation, and death.

What do we learn about Jesus from this biblical narrative? Answers will vary.

How does Jesus’ willingness and resolve to drink “this cup” on our behalf affect you? Answers will vary.

구약성경에서 "잔"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시편 11:6; 이사야 51:17; 에스겔 23:33). 죽음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두려워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고문과 십자가형의 위협은 더욱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 찬 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온전히 마심으로써 버림받음, 죄, 황폐함,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잔"을 마시려는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Heart

The fulfillment of Old Testament Scripture is of particular relevance to Matthew as he crafted his Gospel through a Hebrew lens for a Jewish audience. Matthew demonstrated the various ways in which Jesus fulfilled Old Testament expectations and hopes. From birth to these events in the garden of Gethsemane, Matthew saw fulfillment (Matt. 1:22-23; 3:15; 21:4-5). In this account, fulfillment may have occurred for a combination of Scripture passages (Ps. 55:12-14; Zech. 13:7).

How can the fulfillment of these prophecies inspire hope and confidence in one’s faith? They can bolster and support one’s faith, especially knowing the tremendous odds against Jesus in fulfilling each and every prophecy.

How can you use this knowledge of fulfilled prophecies when talking with a skeptic? If a skeptic asks you what evidence you have in believing Jesus to be the Son of God, one level of evidence you can discuss would be the fulfilled prophecies.

구약 성경의 성취는 마태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 히브리적 관점에서 복음서를 집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구약의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탄생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마태는 여러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마태복음 1:22-23; 3:15; 21:4-5). 이 복음서에서는 여러 성경 구절이 복합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시편 55:12-14; 스가랴 13:7).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믿음에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예수께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는지를 알 때, 이러한 성취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러한 예언 성취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의론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는 성취된 예언들입니다.

Hands

Discussing the wrath of God isn't a popular topic in many American churches. It is a tough truth to accep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e consider that God's wrath against sin will be justly poured out on people who haven't found shelter under the gospel of Jesus Christ. By drinking this cup fully, Jesus experienced abandonment, sin, desolation, and death—and Jesus did that for you and me, so that we would not have to know the eternal torment of these realities.

Why is it important to talk about God's wrath to others even though it may be an unpopular topic of conversation? The more people know about the wrath their sins deserve, the more grateful they will be to a Savior who was willing to take their place.

How might it dishonor Jesus and His sacrifice if we neglect to talk about God's wrath? If we minimize the wrath of God against sin then we minimize the magnitude of Jesus' sacrifice for sinners.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미국 교회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온전히 마시심으로써 버림받음, 죄, 황폐함,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의 영원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비록 불편한 대화 주제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기꺼이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구세주께 더 큰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어떻게 욕되게 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시한다면,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위대함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TIMELINE

Jesus is Arrested

Jesus agrees to drink the cup of suffering.

The Crucifixion

Jesus as our substitute sacrifice.

He is Risen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Hearts on Fire

All Scripture points to Jesus.

Jesus Sends

The disciples witness the risen Christ and receive the peace He brings.

Overcoming Doubts

Thomas' doubts are satisfied when he sees and touches the risen Jesus.

LEADER PACK

For this session, refer students to pack item #6, which contains an informational chart of prophecies related to Jesus' sufferings.

ADDITIONAL INFO

Additional Resources

Check out the following additional resources:

Leader Training Videos

One Conversations

Midweek Studies (to access your Midweek Study, go to lifeway.com/TGPRisenFAL17)

Circular Timeline Poster

App (for both leader and student)

Additional suggestions for specific groups are available at GospelProject.com/AdditionalResources
And for free online training on how to lead a group visit MinistryGrid.com/web/TheGospelProject